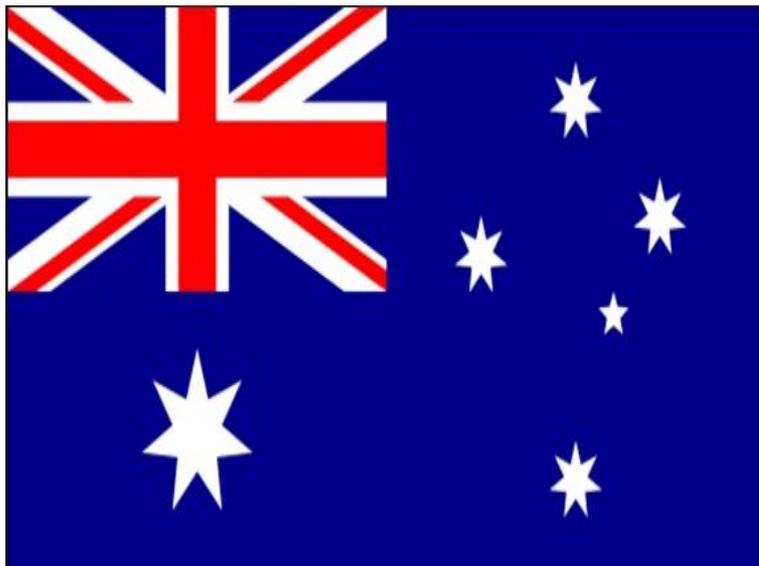


# 호주의 기본정보



<--- Australia 국기

Australia [호주]

국토면적: 7,741,220km<sup>2</sup> 세계 6위

인 구: 약 22,262,501명 세계 55위

G D P: 1조 5859억\$ 세계 12위

언 어: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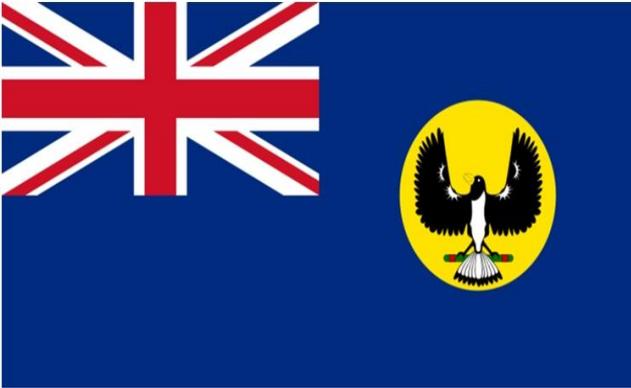
수 도: 캔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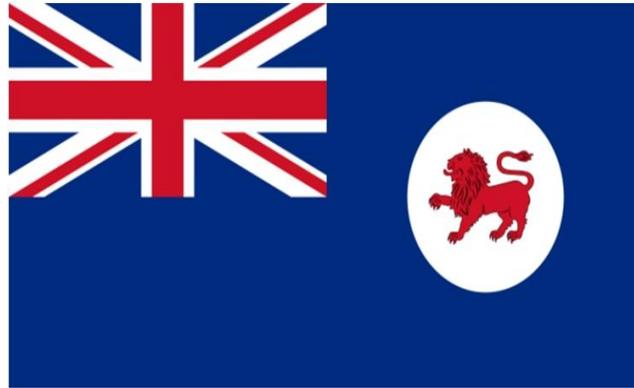
Australia를 왜 호주라고 하는가??

-> Australia를 한자식 표기로 호주라고 한다. 한국에서만 사용  
한국은 Australia를 “호주”  
중국은 Australia를 “아오조우”  
일본은 Australia를 “고우슈”라고 읽는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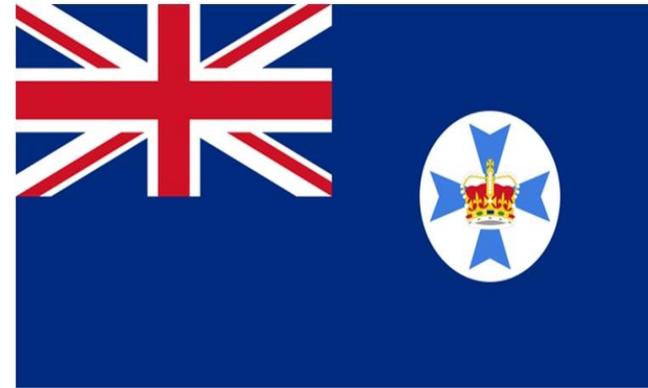
# 호주의 기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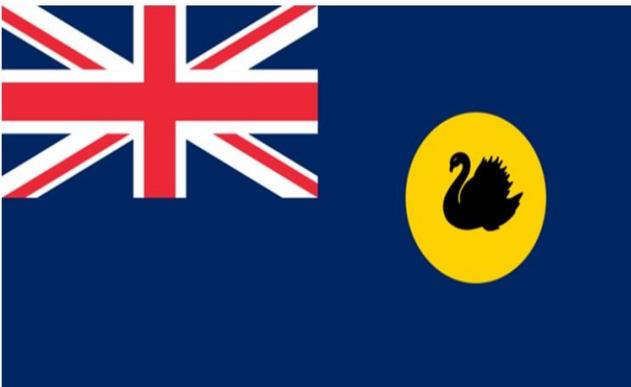
남호주 깃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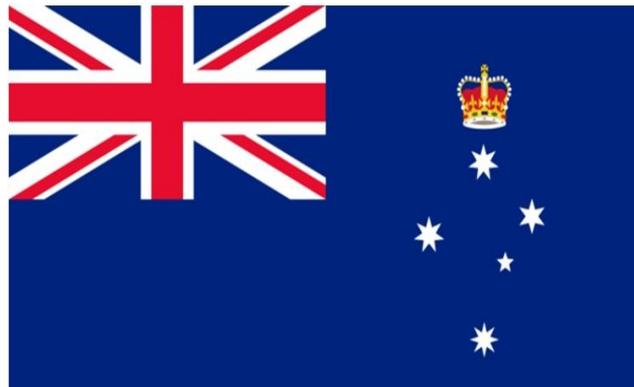
타즈마니아주 깃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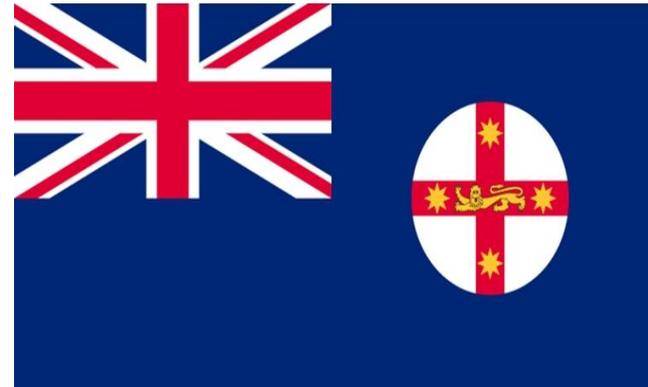
퀸즐랜드주 깃발



서호주 깃발



빅토리아주 깃발



뉴사우스웨일즈주 깃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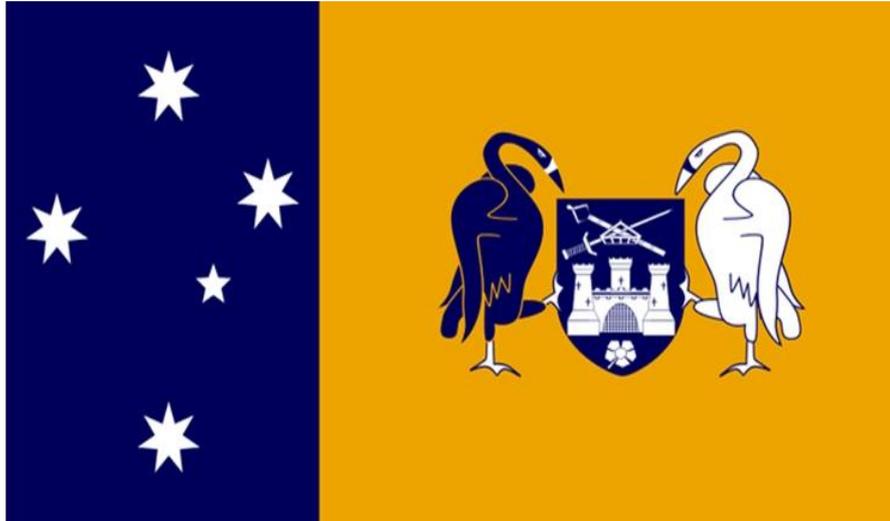
호주는 6개의 주와 2개의 준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각주마다 법이 다르다.

# 호주의 기본정보



## 에버리진의 깃발

에버리진의 깃발에 세 가지 색은 각각 태양과 지구에 버리진의 피부색을 나타낸다.



## 행정수도 캔버라의 깃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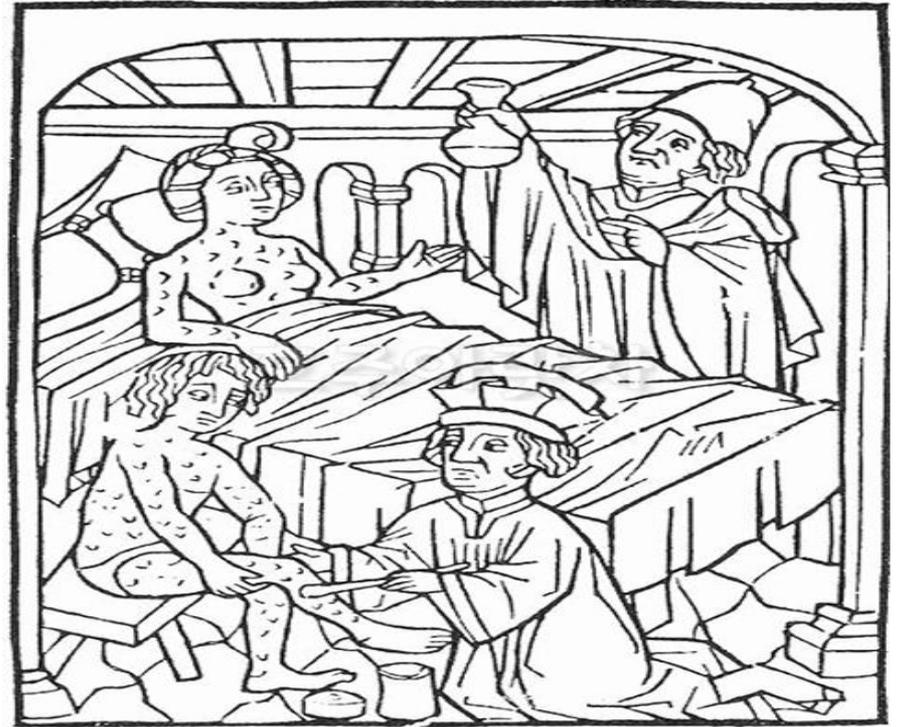
캔버라는 이 지역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용어인 '캠버라(Kamberra)'에서 따온 이름으로 '모이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 호주-에버리진



CAPTAIN COOK'S LANDING AT BOTANY, A.D. 1770.

1770년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호주 시드니를 찾은 사진



전쟁보다 총칼보다 그들을 위협했던  
것은 영국인이 호주 땅에 데려온  
질병이었다.

# 에버리진 악기-디저리두

---



“디저리두”의 입으로 부는 부분  
입술이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밀납으  
로 발라져있다.

호주 원주민 에버리진의 전통악기  
“디저리두”

# 호주-오페라 하우스 하버브리지



200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선정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호주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많은 관광객이 오페라 하우스를 보기위해 해마다 호주를 찾고있다.



하버브리지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함께 시드니와 호주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아치교 특유의 디자인으로 인해 옷걸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 호주-오페라 하우스



흥측하게 변한 기형적인 얼굴을  
가면으로 가린 괴신사가  
아름답고 젊은 프리마돈나를 짝  
사랑하는 이야기



파리 오페라하우스는 빈 국립오페라하우스와  
밀라노 오페라하우스와 함께 세계3대 오페라  
하우스라 불린다.

# 호주-호주의 동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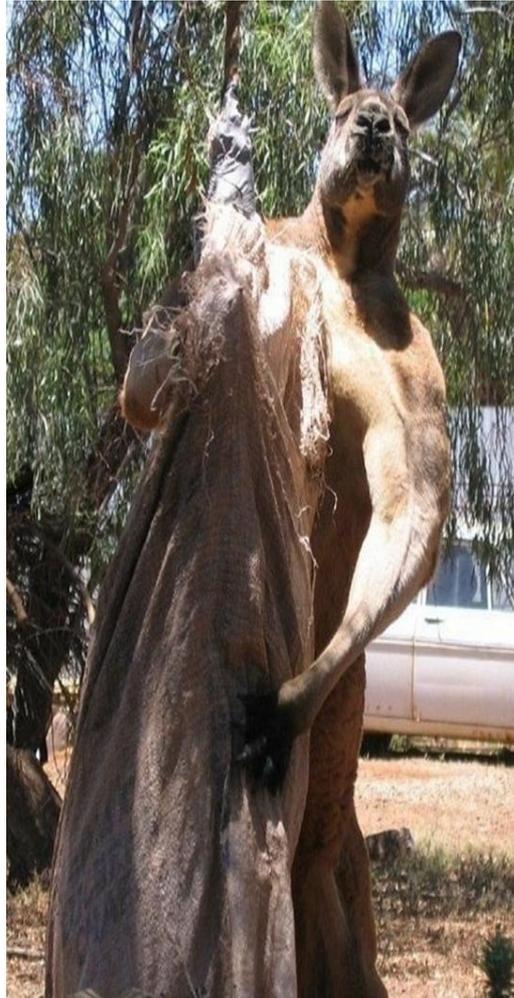


캥거루의 가장 큰 특징은 아랫배 앞에 있는 육아낭이다. 출산 직후에 새끼는 앞발만을 이용해 육아낭 속으로 기어 올라간 뒤 육아낭 속의 젖꼭지에 달라붙어서 자란다.



코알라는 호주현지에서는 Native bear라고 불린다. 코알라는 영장류가 아니면서도 유일하게 지문이 있다. 수명은 15~20년 정도

# 호주-호주의 동물들



# 켈틱음악(Celtic Music)



켈틱음악을 이어가는 그룹 켈틱썬더



켈틱음악을 이어가는 그룹 켈틱우먼

켈트 뮤직이 지금까지도 독자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아직까지도 크고 작은 다양한 음악적 행사들이 일년내내 끊이지 않고 어디선가 이어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Republic of South Africa



수도

프리트리아-행정, 케이프타운-사법, 블룸폰테인-입

법  
언어

영어, 아프리칸스어, зулу어

면적

1,219,090km<sup>2</sup> 세계25위 (CIA 기준)

인구

약 48,601,098명 세계26위



# 남아프리카공화국 Republic of South Africa

흑백화합 이뤄낸 '인권의 화신'

## 넬슨 만델라

눈에 보이고 의사가 고칠 수 있는 상처보다,  
보이지 않는 상처가 훨씬 아픕니다.  
남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은  
쓸데없이 잔인한 운명으로 고통 받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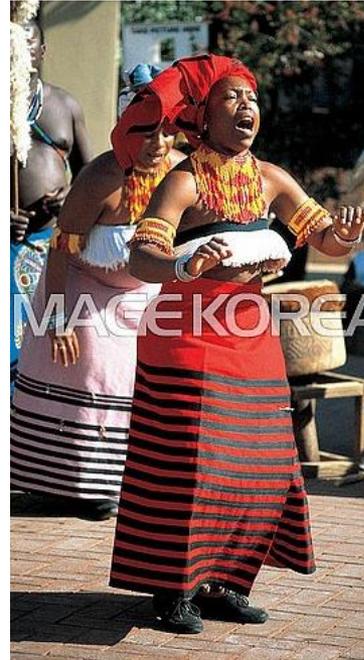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시 오랜 식민과 전쟁의 역사를 겪었다. 그 후 유럽인들의 진출이 이어져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의 백인들이 그들의 언어와 문화, 자유를 제약했다. 그 여파 속에서 차별과 억압에 맞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넬슨 만델라가 있다.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표적 인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흑인인권운동가이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통의상



남아공의 대표되는 부족인 '줄루'족을 보면 그들의 전통의상은 전투민족답게 주요 성기를 동물의 뿔이나 나뭇잎 등을 최소화하여 가리고 위장을 하고 창과 방패를 든 모습이 전통적이다.



반면 상위층들의 공식석상에서 입는 복장은 남성은 각 부족의 전통문양이 수놓아져 있는 깔끔한 정장 스타일, 여성은 머리에 스카프를 터번처럼 둘러싸고 의상은 원피스 혹은 투피스로 전통문양이 수놓아져 있는 의상을 주로 착용한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통악기



악기이름:

zulu people Drum (줄루부족 북)

제작지역:

Zulu, South Africa (줄루족, 남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통악기



악기이름:  
Horn(혼)

제작지역:  
Zululand, South Africa(줄루랜드, 남아프리카)

악기재료:  
Ivory(상아)

악기크기:  
L. 52 cm (20 1/2 in.); Ovoid at wider end H. 8 cm (3 3/16in) x 6.5 cm (2 9/16in)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통악기

## 경기내내 "삐~" 응원 시끄러운 악기 정체는?

[OSEN=이명주 기자] [아프리카 전통 문화](#)의 상징인 '부부젤라(vuvuzela)'가 사실은 멕시코에서 온 수입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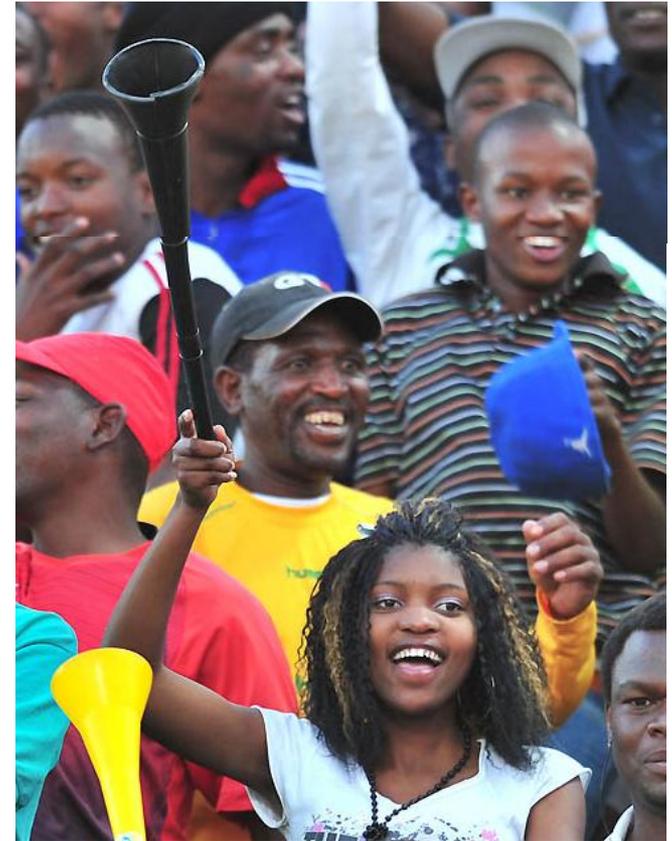
**연국** <텔레그래프>는 15일(한국시간) 특유의 시끄러운 소리로 월드컵 기간 내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부젤라'에 관한 몇 가지 오해들을 정리했다. '부부젤라'란 코끼리 울음소리를 내는 남아공 줄루족에서 유래했다는 나팔 모양의 전통 악기로 아프리카 축구팬들이 응원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젤라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통 악기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텔레그래프>는 "비록 현재 남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부부젤라의 원산지는 멕시코다"고 보도했다.

### 부부젤라

남아공 최대부족인 줄루족에서 유래된 것으로 나팔 모양을 하고 있다.

길이는 60~150cm 정도로 '코끼리가 울부짖는 소리'와 흡사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 남 아프리카공화국 전통음악

마스칸다, 음바캉가, 콰이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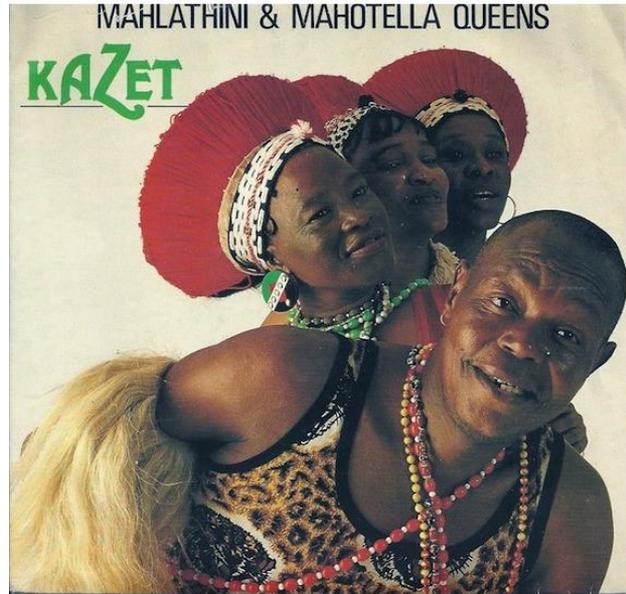
1990년대 최고의 마스칸다 뮤지션- 퓨즈케미시

줄루 전통음악에 기타연주가 가미되어 서구화된 스타일의 음악이다. 기타라는 악기가 없던 줄루족에게

네덜란드 음악인들이 기타를 소개하여 줄루족은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하게 되었고 나아가 드럼, 베이스기타 등의 악기를 사용하는 풀 밴드를 구성하게 되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전통음악

마스칸다, 음바캉가, 콰이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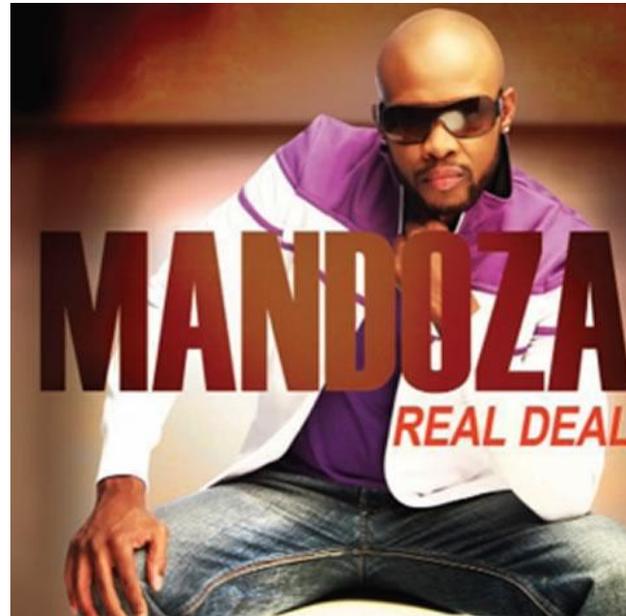


대표 뮤지션- 말라티니와 마흐라티니 퀸스

여러 음악적 요소들이 섞여져 있는 특징이 있다. 초기형태는 음카시요라고도 하며 페니휘슬(아프리카 피리), 켈라, 줄루의 노래 기법, 가스펠, 도시적 섹스 자이브, 마라비 등 여러 음악 장르들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독창적 영역이다. 이는 이후의 타운십 자이브, 타운십 솔 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전통음악

마스칸다, 음바캥가, 콰이토



대표 뮤지션- 만도자

브러더스 오브 피스에 의해 음바캥가의 노래를 재탄생 시킨 것. 1990년 중반 이후 등장한 남아공의 토착 댄스 음악.

서구댄스 음악이 들어와 남아공의 전통음악과 결합 하여 탄생되었다. 유럽의 음악의 비해 느리게 만들고 더 많은

드럼과 사운드, 그들만의 아픔을 담아낸 가사를 입힌 것이 특징이다.

1990년 초 까지 끊이지 않던 흑인들의 폭동 속에서 억압과 저항 등의 정신적 외상을 표출하는

---

# 남 아프리카공화국의 음악

다채로운 화음

아프로-

‘무지개 나라’(Rainbow Nation)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음악

## 맘바조

토착적인 줄루 보컬 음악과 미국의 주빌리 스타일이 만나 탄생한 음악으로 남아프리카 줄루족의 남성 합창에서 비롯.

남아공의 음악은 여러 사람이 화음으로 노래하는 데 중점을 둔 다중화음 합창.

-1939년 솔로몬 린다의 오리지널 이브닝 버즈가 부른 음  
부베는

남아공에서 처음으로 히트한 흑인 뮤직이다.

1961년에 나온 토크의 라이언 슬립 투나잇은 1951년 위  
버스의

위모베라는 곡으로 미국에서 리메이크되어 큰 인기를 끌  
었다.



## 조니 클레그

민족의 전통 음악과 유럽풍 댄스 음악을 결합시킨 음악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전 세계를 돌며 아프리카와 유럽 문화의 공존을 추구. 이들은 영어와 흑인 토속어로 가사를 붙이고, 영미의 팝 음악적 요소에 아프리카 특유의 리듬을 접목한 창법을 보였다.

-영국 출신 조니 클레그와 줄루족 출신의 시포 음추누가 함께 결성한 줄루카라는 밴드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음악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즈 음악가 미리암 마케바.

2001년 앨범 「홈랜드(Homeland)」로 월드뮤직 그래미상을 수상했다.

전통적인 재즈의 법칙에 아프리카의 토속 리듬과 스타일을 접목하여

탄생시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재즈 음악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매우 독특한 음색을 보유하고 있다.



과줄루나탈출신의 여성 음악가인 부시 음흘롱고.

그녀는 남아프리카 줄루(Zulu)족의 전통 음악을 새로운 단계로 올려놓았다고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아티스트이다.

